

“19초97”…고승환, 200m 꿈의 기록 목표로 달린다

“전국육상선수권서 남자 200m 20초45…한국新 0.05초 차 아쉬워”
도쿄세계육상선수권 출전·태어난 해인 1997년 맞춰 19초97 목표

한국 남자 200m ‘현역 최강’ 고승환(29·광주시청)이 스스로를 뛰어넘는 또 다른 기록에 도전한다. 25일 오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만난 고승환은 전날 전국육상선수권대회를 마치고 광주로 막 귀환한 참이었다. 고승환은 24일 강원 정선에서 끝난 ‘제79회 전국 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200m 준결승에서 20초45를 기록하며 지난해 6월 전국선수권에서 자신이 세운 기록(20초49)을 0.04초 단축했다. 고승환은 남은 시즌 박태건의 한국신기록 20초40 타파에 나선다. 고승환은 “한국 신기록을 깨지 못한 건 아쉽지만 기량을 다 보여줬다”며 “준결승날 트랙·몸 컨디션, 날씨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오히려 결승전 당일에는 전날과 같은 컨디션이 아니라는걸 알았고 침착하게만 하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량을 전부 보여줬다는 것은 주어진 트랙 위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다. 고승환은 “이번 대회는 레이스를 앞두고 준비가 완벽히 됐고 내가 뛰고 싶은 레이스를 한다는 자신감도 붙어있었다. 자신있었다”고 강조했다. 고승환의 자신감은 그동안 꾸준히 지켜온 연습 루틴이 실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에 있다. 고승환은 출전 직전까지 “준비 잘 했으니까 자신감 잃지말자 후회없는 레이스하자”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고승환의 ‘질주’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했다. 그는 “당시 선생님께서 반에서 가장 잘 달리는 학생 나옴이라고 하셨고, 손을 들고 나갔다가 달력 1등을 했다. 1등을 하니 기분이 좋았고 그때부터 달리기

대한 재미를 느껴서 시작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고1때까지 멀리뛰기가 주 종목이었지만 고2때 인천고 감독·코치의 권유로 200m로 종목을 전환했다. 고승환의 고향은 인천이지만 2023년 광주시청 소속이 됐다.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팀인가’를 가장 고려했다. 그는 “광주에 기량이 좋은 선배도 많고 감독님과 코치님께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해서 광주로 답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승환은 “아버지께서 항상 ‘육상은 기록경기다. 기록을 내기 위해 훈련을 하다 보면 메달은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하셨다. 메달에 목표를 두기보다 기록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독 기억에 남는 특별한 대회도 있다. 고승환은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400m 계주 동메달을 땀 때 정말 많이 울었다. 선발까지 과정도 힘들었고, 계주 전날 200m에서 7위를 하면서 내 커리어 하이가 20초68(2019년 나폴리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끝날까 봐 무서운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동료들의 격려로 이겨냈고, 큰 시합을 뛰고 좋은 선수들과 경쟁한 경험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얻게 됐다”라고 언급했다. 오는 9월 ‘2025도쿄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출전권을 따내기 위한 고승환의 각오는 남다르다. 고승환은 “2023년 방콕 세계대회 출전 때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대회 출전에 앞서 지난 대회 경험을 토대로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며 준비하고 있다”라며 “한국을 대표해 출전하게 된다면 꼭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 무엇보다 태극마크를 단 내 모습이 후배들의 지향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육상 선수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희망을 담은 메



광주시청 고승환이 25일 오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트랙 위에서 출발자세를 취하고 있다.

시지도 잊지 않았다. 고승환은 “자신이 세운 높은 목표를 두고 남들이 비웃을 수도 있고, 가는 길에 몇 번이고 넘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그랬듯, 본인이 생각하는 목

표까지 자신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받으며 달려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1997년생인 그의 최종 목표는 뚜렷하다. 200m 19초97.

그는 “200m 19초97 기록을 세우는 것이 선수 인생의 최종 목표다. 태어난 해인 1997년에 맞춰 의미있게 집주를 마치고 싶다”라고 웃어 보였다. /글·사진=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세계랭킹 올린다”…신유빈, 홍콩 두호이켄과 복식조 출격

WTT 컨텐더 자그레브 출전
단식·복식·혼합복식 강행군

한국 여자탁구 에이스 신유빈(21·대한항공·사진)이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랭킹을 끌어올리기 위해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신유빈은 24일(이하 현지시간)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개막한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컨텐더 자그레브 2025’에서 여자단식과 여자복식, 혼합복식에 출전한다. 지난 주말 슬로베니아 류블라나에서 끝난 WTT 스타 컨텐더 류블라나에 참가해 임종훈(한국거래소)과 혼합복식 우승을 합작하고, 최효주(한국마사회)와 여자복식 준우승을 일군 데 이른 바쁜 일정이다. 신유빈은 이번 여자복식에서 원소 최효주와 두 번째로 함께 출전하고, 혼합복식에선 작년 파리 올림픽과 올해 5월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각각 동메달을 수확했던 임종훈과 나선다. 신유빈은 자그레브 대회를 마친 후에는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개최되는 ‘WTT 미국 스매시 2025’에 참가한다. 총상금 155만달러가 걸린 이 대회에서 관심을 끄는 건 신유빈의 여자복식 파트너가 최효주가 아닌 홍콩의 여자 간판 두호이켄이라는 것이다. 세계랭킹 35위인 두호이켄은 작년 파리 올림픽 때 혼합복식 3위 결정전에서 신유빈-임종훈 조에 져 동메달 재물이 났던 선수다. 미국 스매시에는 복식 종목에 국가별로 1개 조만 참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랭킹 11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듀오’ 김나영-유한나 조가 한국 선수 복식조 중에



서 우선권을 받았다. 한국 선수로는 올해 세계선수권에서 갑작 동메달을 땀던 신유빈-유한나 조가 세계 10위로 가장 높지만, 이 대회에는 국가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 대회여서 소속팀 중심으로 복식 조합이 꾸려졌기 때문이다. 신유빈으로선 최효주와 듀오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외국 선수 중 파트너를 찾았고, 수소문 끝에 두호이켄과 복식 콤비를 이루게 됐다. 주세혁 대한항공 감독은 “복식에는 나라별로 1개 조씩만 출전할 수 있고, 다른 나라 선수와 복식

조를 구성하면 추가로 2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면서 “두호이켄 선수와 일정이 맞아 함께 뛰게 됐다”고 말했다. 신유빈의 ITTF 세계랭킹은 현재 여자단식 10위, 임종훈과 호흡을 맞추는 혼합복식 5위이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합작했던 전지희가 은퇴하면서 신유빈은 여자복식에선 파트너를 계속 물색 중이다. 지난 2월에는 소속팀 선배 이은혜와 WTT 싱가포르 스매시에 출전했고, 5월 세계선수권에선 유한나, 지난주 WTT 류블라나에선 최효주와 각각 호흡을 맞췄다. /연합뉴스

‘여성 포청천’ 전영아 배구연맹 심판위원장 선임

역대 2번째 여성 심판위원장

“한국배구연맹(KOVO)의 전체 심판진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심판들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소통도 강화할 생각입니다.” 프로배구 여성 심판으로는 유일하게 원년인 2005년부터 20년 넘게 활동해온 전영아(54·사진) 심판이 24일 열린 배구연맹 이사회에서 새로운 심판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여성 심판이 심판위원장에 오른 건 전임 최재효 위원장 직전인 2023년 7월부터 심판진을 총괄했던 강주희 전 위원장 이후 두 번째다. 전영아 선임 심판위원장은 청소년 국가대표를 지낸 선수 출신이다. 그는 경복여상 세터로 뛰었고, 1989년부터 1993년까지 후지필름과 한일합성에서 선수로 활동했다. 전 위원장은 실업 입단 직후부터 청소년 국가대표로도 활약했으나 공부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해 1995년 선수 생활을 접고 한양대 경기지도학과에 입학했다. 그해 결혼과 함께 대한배구협회 심판강습회에 참가한 게 계기가 돼 졸업 후 아마추어 심판으로

활동했고, 2005년 프로배구가 출범하면서 배구연맹 심판 1기로 프로 심판으로 입문했다. 그는 2006년 9월 22일 경남 양산체육관에서 열린 컵대회 여자부 KT&G-흥국생명 경기에 주심으로 데뷔했다. 그는 V리그 원년부터 지난 2024-2025시즌까지 20년간 주·부심으로 919경기에 나섰고, 전심으로는 83경기에 출장했다. 여성 심판으로는 최초로 500경기 출장을 달성하고 유일하게 남자부 경기 주심으로 휘슬을 분견 전 위원장의 특별한 이력이다. 2013-2014시즌에는 V리그 시상식에서 최우수 심판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등 메이저 국제 대회에서 주심을 보는 꿈을 안고 2012년 국제배구연맹(FIVB) 국제심판 자격시험을 통과해 국제심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세르비아에서 열리는 FIVB 19세 이하(U-19) 대회에 국제심판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그는 깨끗한 외모에 부드러운 미소를 보이면서도 반칙에는 가차 없이 휘슬을 불며 칼날 같은 판정으로 유명하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96회 정기연주회
‘Contrast’

일시 : 2025-06-2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별의 항해 : 오혜성 개인전

일시 : 2025-06-05(목)~2025-07-06(토)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